

100년 전 목조세탁기 구경하세요

2009-08-05



100년 전 만들어진 목조세탁기와 80년 된 진공청소기가 일반인에게 공개됐다. 독일 가전업체 밀레는 창립 110주년을 맞아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밀레코리아 전시장에서 수십 년 전 제작된 가전제품을 선보였다.

변영욱 기자 cut@donga.com